

이문세 '붉은 노을' 광주 물들인다

29·30일 문예회관 대극장서 콘서트

'행복한 콘서트로 초대합니다.' 지난 1983년 1집 앨범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데뷔한 이문세는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1996년에 첫선을 보였던 콘서트 '독창회'는 한국의 대표 명품 콘서트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며 '브랜드 공연'의 서막을 열었다.

그가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전국 투어 콘서트 '붉은 노을' 역시 관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또 다른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붉은 노을'은 지난해 9월 용산 전쟁기념관 공연을 시작으로 연말

곡을 맡아 음악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 관객의 고정 관념을 깨트리는 연출과 화려한 무대 매너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전해준다.

특히 이번 콘서트에서는 지난해 '붉은 노을' 콘서트 시작과 함께 발매했던 콘서트 OST 음반 수록곡인 '서로가' 등을 들려준다.

드라마나 영화의 영상을 위한 OST 음반은 일반화 되었지만 라이브 공연을 위한 OST 음반은 다소 생소한 컨셉, 9집 앨범 수록곡 이기도 한 '서로가'를 비롯, '밤이 머무는 곳에', '오늘 하루' 등이 수록된 이 음반은 가요계 불황 속에



오페스트라 연주 '광화문 연가' 등 히트곡 열창

관객 대상 시상 이벤트에 재치있는 입담은 '덤'

부산 베스코 공연까지 모두 11회 공연 연속매진을 기록하며 6만명의 유료 관객을 동원, 국내 최대 티켓 예매 사이트인 인터파크 집계 연간 예매 1위에 올랐다.

오는 29일(오후8시)과 30일(오후 7시) 이틀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광주 공연 역시 티켓 예매가 시작된 후 높은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를 위해 구성된 붉은노을은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오프닝 연주로 막을 여는 이번 공연에서는 공연의 타이틀인 '붉은노을'을 비롯, '소녀', '깊은 밤을 날아서', '조조할인', '광화문 연가', '그녀의 웃음 소리 뿐' 등 술한 히트곡들을 선보인다. 특히 유명 작곡가 김형석씨가 오페스트라 편

서도 2만여장이 판매되는 등 또다른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밖에 관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붉은 노을 시상식'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이문세 공연의 또 다른 재미는 바로 재치 넘치는 입담이다. 지금도 매일 오전 9시 라디오(MBC FM '오늘 아침, 이문세입니다') 프로를 진행하는 등 TV와 라디오를 넘나들며 오랫동안 진행을 맡았던 이문세는 이번 콘서트에서도 유쾌한 입담을 선보인다.

이문세는 지금은 고인이 된 작곡가 하광훈과 손잡고 1985년 발표한 3집 '난 아직 모르잖아요'가 빅히트를 치면서 이름을 알렸고 이후 4집 '사랑이 지나가면', 5집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등을 발표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02년 14집 '빨간 내복' 후 정규앨범 발매는 틈틈이 드라마 '발칙한 여자들'의 삽입곡인 '알 수 없는 인생'으로 인기를 모았다.

특히 빅뱅과 이수영, 임재범 등이 '붉은 노을', '광화문 연가',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등을 발표

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등을 리메이크 하는 등 그의 곡은 시대를 뛰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티켓 가격 9만9천원~6만6천원.

문의 1588-0766.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662명 고전문집 인터넷으로 본다

'연암집' 등 데이터베이스 작업 10년만에 완료

통일신라 시대의 최치원부터 구한 말의 최치현까지 우리나라 주요 인물의 문집을 업선한 '한국문집총간' 정편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10

년 만에 끝났다.

한국고전번역원(원장 박석무)은 최근 '한국문집총간' 정편 663종 350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끝내고

이달 말 웹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속편 150책 가운데 17책은 고전번역원 한국고전DB 사이트 (<http://db.itkc.or.kr>)에서 함께 볼 수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디지털화 작업에는 10년이 걸렸으며 예산은 55억원이 들었다. 글자 수는 무려 1억6천만자나 된다.

통일신라시대의 '계원필경'(최치

광주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4월10일~6월10일 비엔날레 전시관 '디지페스타'

백남준 미공개작 전시

지난 1984년 고 백남준이 한국에 돌아와 소개했던 비디오아트는 회화와 조각 등이 주류였던 국내 화단에는 적잖은 충격이었다. 이후 1995년 창설된 광주비엔날레 등을 통해 세계 유명 작가들의 설치작품과 미디어 아트가 본격적으로 소개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아남 등 미디어 아트 작가들이 탄생하게 됐다.

광주에서 백남준 등 국내외 대표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이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 중소기업(주)디스택은 오는 4월10일부터 6월10일까지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미디어아트 작품을 소개하는 '디지페스타(DIGIFESTA)'를 연다.

이번 전시는 '백남준 특별전' '주제전' '청년 작가 공모전' '체험전' 등으로 펼쳐진다.

특히 비디오아트의 선구자 백남준의 작품이 광주에서 대거 소개돼 더욱 관심을 끈다. '백남준 특별전'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을 비롯해 그동안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들까지 전시를 보인다.

'주제전'은 '감시와 통제 속 인간의 존엄성'을 주제로 이아남, 손봉체 등



이아남 작 '인왕제색도'

국내외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작품 25점은 선보인다. 또 미디어아트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모전'은 20일까지 심사 등을 통해 참여 작가 25명을 선발 이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특히 비디오아트의 선구자 백남준의 작품이 광주에서 대거 소개돼 더욱 관심을 끈다. '백남준 특별전'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을 비롯해 그동안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들까지 전시를 보인다.

시립미술관 관계자는 "젊은 작가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결합한 예술 작품이 많아, 재미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70-7721-576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LED와 미술의 만남 '광주의 빛' 전 ▶ 25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

광주 지역 기업들과 광(光)아트를 이용한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광주 빛-예술 연구회'가 지금까지 성과물을 모아 25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광주의 빛'전을 연다.

'광주 빛-예술 연구회'는 한국산업 단지공단과 광주 디자인센터에서 각각 1억 5천만원과 1억원을 지원받아 조선대 제품디자인학과와 LED 제품을 디자인하고 광이트 상품을 개발하는 등 LED를 활용한 예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시도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LED를 활용한 회화, 입체, 영상, 미디어 등 40여점을 선보이며 참여작가는 김상옥·김숙빈·김진화·신호윤·위재환·윤익·이기성·정선휘·진시영씨 등이다.

조각을 전공한 김상옥·김숙빈씨는



정선휘 작 '여행'

기존 작품에 LED를 접목, 형형색색 빛을 발하는 조각 작품을 선보이며 정선휘씨는 LED가 회화 작품과 반응하면서 변화하는 색채를 통해 또 다른 이미지를 담은 '여행'을 전시한다.

또 진시영씨는 테크노파크의 과학 기술협력센터 외벽에 설치한 미디어 파사드 모형 '불결'을 보여준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4월 10일 ~ 6월 10일]
[비엔날레 전시관 '디지페스타']

무안 ←→ 하이난(삼마) 직항

		무안	하이난(삼마)	무안
항공권	항공권	항공권	항공권	항공권
1,290,000원	1,290,000원	1,290,000원	1,290,000원	1,290,000원
1,290,000원	1,290,000원	1,290,000원	1,290,000원	1,290,000원